

새로운 노트

2025.05.17 토 오후 10:03 · 29분 23초

이태수

참석자 1 00:00

연화유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전체 레파지토리를 검색을

참석자 1 00:10

레파지토리에서 검색 레파지토리에서 검색 네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드 서치 안에 보면 레파지토리에서 검색하는 게 있고 도큐멘터를 뒤져서 검색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참석자 2 00:26

레퍼지토리랑 도큐먼트 두 갈래로요. 네네 네

참석자 1 00:30

그렇게 해서 레파지토리아에서 검색을 하는 거는 해당 비슷한 코드들을 이제 추천해서 이 중에서 이게 맞냐 물어보면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 코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아니면 분석된 걸 볼 수가 분석까지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그게 아니면 이제 전체 레파지토리가 아닌 위키 같은 때 도큐먼트로 이제 그 코드에 대해서 저장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코드가 왜 나왔는지 회의록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랑 참조된 코드를 또 찾아주는 우리 레파지토리에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적으세요.

여기에 그냥 바로 그림에서

참석자 2 01:30

첫 번째로는

참석자 1 01:31

레퍼지트리

참석자 2 01:51

그리고

참석자 1 02:35

히스토리 같은 거겠쥬

참석자 2 02:37

네네 혹시 이 두 개로 하면 맞을까요?

참석자 1 02:43

네 지금 그 두 개가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요청을 하는 걸 멀티턴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휴먼 인드루프 같이 이걸 분석해 줄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eso도 버튼으로 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 사실 그 AI가 하는 실수를 조금씩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로그로 남으면 그 로그를 훈련 데이터로 쓸 수가 있거든요.

왜 자꾸 이런 이 쿼리를 요청할 때 애라고 눌러야 될 걸 왜 넣으라고 자꾸 누를까 그러면 로그가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에 대한 쿼리 요청했던 걸 찾아가지고 서비스에 반영할 때 해결할 수 있게끔 고쳐나가는 거죠.

실제 서비스들은 그래서 로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비스에 로그도 많이 남기는 걸로 남겨서 DB에 적재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2 03:43

네 멘토님 저희가 부트 캠프에서 그것도 배웠었거든요.
랭 스미스라고 로그 뽑을 수 있는 그걸로 기억을 하는데

참석자 1 03:51

네 랭스미스도 좋고 네 로그를 따로 s3 같은 데나 이렇게 적재를 해가지고 자꾸 쌓아 넣는 게 좋아요.
네네네 실제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로그 데이터가 하루에 한 몇 억 건 이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로 훈련도 시키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요.

참석자 1 04:16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이나 아니면 면접관들이 로그 같은 거 해봤냐 로그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먼저 추후에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들을 남겼고 우리들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다가 이 로그를 파악해가지고 UI를 개선하거나 성능을 개선했다 이런 식으로도 풀면 좋아하시거든요.
로깅 작업이 엄청 중요합니다.

참석자 2 04:4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2 04:51

그리고 두 번째 에이전트 보여드릴게요.

참석자 1 04:55

여기 그거 하나 붙여야죠. 분류 인풋 도큐먼트 밑에 코드 컨벌전 붙여야죠.

참석자 2 05:01

맞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 1 05:09

생각보다 현업에서는 내가 고려 안 했던 거 하는 거 많죠.

참석자 2 05:13

엄청 많은데요.

참석자 1 05:14

저도 처음에 회사 가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놀라긴 했었어요.

내가 고민하던 LLM만 AI만 만지는 게 아니구나.

참석자 2 05:23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뭐야 저희가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도 그 멘토님이 금요일인 목요일에 강의를 해 주셨을 때 그거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기존의 걸 몰아내고 할 만큼 비용적에서 효율적인지 그런 건 저희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보니까

참석자 1 05:39

항상 이제 경쟁 우위가 있어야 이야기가 풀려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는 리서치거든요.

리서치 예를 들면 신기술이 나오면 한번 구현해 봤다.

참석자 2 05:52

아 네네네네네네

참석자 1 05:53

그 정도 하면 이제 질문이 어떤 게 나오냐면 그거 하면서 이제 뭐가 단점이었어
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그래서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에 붙였고 서
비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말이 끝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레파지토리를 활용할 때 신기술을
자꾸 이제 구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프로젝트를 자꾸 그런 것들을 이
제 붙여가지고 나가면서 단점이나 장점 같은 걸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나눠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네 이거 해라 해도 안 해요. 아무도 근데 하면 진짜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참석자 1 06:35

코를 네네 코볼 코볼을 자바로 이런 것도 있으면 좋아요.

참석자 2 06:39

뽀뽀리를 잡아라.

참석자 1 06:40

근데 이게 사실 실제 서비스에는 뭘 많이 고민하냐면 챗gpt를 안 쓰고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일단 지금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자기 코드를 돈을 몇십 억 주고 만든 코드를 챗gpt한테 바치고 싶겠어요.

참석자 1 07:04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대부분 회사들은 온프레미스 환경을 많이 고려해야 해요. 온프레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온프레미스는 사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이제 통신망이 안 꺼져 있는 내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내부에 챗gpt는 사실 법용적인 모델이잖아요.

네 저거 운영하는 데 돈이 엄청 들어요. 실제로 엔터프라이즈에서 요청을 했더니 천억인가 400억인가 달라고 했대요.

설치해 준다고 근데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런 게 왜냐하면 딱 하나만 잘 되는 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거는 1b 모델, 3b 모델 8b 모델도 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튜닝을 잘 시켜서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지 그런 것들이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력서 써주셔가지고 지원하실 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최적화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네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2번째로 가봐도 될 것 같아요.

참석자 2 08:08

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내부 문서였죠.

근데 내부 문서를 카테고리화론 해서 에이전트 2에서도 분기별로 나뉘거든요.

네네네 프로덕트 상품에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 그 사내 문서 다큐먼트 그런 종류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사내 질문들 그러니까 신입이 사수한테 할 만한 질문 같은 거

참석자 1 08:32

그러니까 기술 문서도 될 수도 있겠죠. 거기서

참석자 2 08:35

기술 문서요. 네

참석자 1 08:37

기술 문서도 될 수 있고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기술 문서 HR 폴리시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만 나눠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R 폴리시도 따로 해요. 다큐멘터리를 없애고 HR 폴리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1 09:05

네 밑에는 기술 문서 이거는 더 고민을 해보시고 더 추가할 게 있을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많이 고민해서 찾아오시거나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2 09:23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09:24

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세요.

참석자 2 09:26

네네.

참석자 1 09:27

3번으로 가볼까요?

참석자 2 09:29

네 3번은 저희가 살짝 고민을 많이 했던 거긴 한데 이거는 문기를 나누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카테고리 물류 질문인지 아니면 시계열 예측 질문인지 그거 두 개밖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희가

참석자 1 09:46

좋습니다. 시계열이든 카테고리든 비슷한 데이터들을 캐그에서 찾아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2개의 에이전트가 나오겠죠. 거기서

참석자 2 09:57

네네.

참석자 1 09:57

그다음에 하나 아까 더 말한 게 이제 텍스트 SQL 플러스 시각화였잖아요.

네

참석자 2 10:02

시각과 질문도 따로 있을까요?

참석자 1 10:06

뭐라고요?

참석자 2 10:07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에이전트도 세 분기로 나뉘는데 카테고리 분류라든지 아니면 시계열 예측 그리고 시각화 요청도 하나의 분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참석자 1 10:19

맞습니다. 그래서 RDMMS를 3개를 운영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정도로 하는 한 팀이 거의 없어요. 스피드 거의 한두 개 분기 만들어서 대신 제가 100점 준 팀은 서비스에 많이 고민을 한 팀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서비스 차원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한 거는 점수를 높게 줬단 말이에요.

아사이 기술적으로 하거나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리포트 조사도 꼼꼼하게 해라고 하는 게 서비스에도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을 남기고 기술로도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을 남겨야 돼서 그렇거든요.

지금 팀원들도 다 너무 좋으시고 잘하시니까 시간을 최대한 이제 분배해가지고 잘 쓰려면 그게 제일 좋을 거예요.

참석자 2 11:04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 1 11:17

그러니까 이것도 데이터를 뭐 쓸지 잘 고민을 하세요.

아예 관련 없는 데이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타겟을 회사를 할까 아니면 법령적인 모듈일까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막 그런 고민도 하셔도 좋아요.

이걸 서비스화시킨다면 하나의 회사에 이제 솔루션으로 팔 건지 아니면 법령적인 회사로 그냥 여기 우리가 에이전트 3개를 만들어 뒀으니까 여러분들은 DB만 붙이면 이것들이 다 해결돼요 라고 같지 그런 식으로도 이제 고민을 좀 하셔서

그것들을 장표에 좀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2 12:01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12:02

아까 시장 조사하셨던 태수 님 이었나? 네 네 네 태수 님이 아까 그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좀 고민을 하시고 장표에 녹여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대한 이 여기도 다 작업을 해가지고 PPT에 다 넣으세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다 최종 발표 중간 발표 때 쓸 거니까.

네 논문도 그렇고 재밌는 게 많이 막 오버해 가지고 많이 쓰면 지우는 건 쉬운 데 없는 다시 만들어내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최대한 많이 넣고 그냥 지워나가는 게 나아요.

참석자 1 12:41

그리고

참석자 2 12:42

발표 PPT랑 그런 거 니까 살짝 다른 종류의 질문이라 해도 괜찮을까요?

참석자 1 12:46

네네네. 다른 취업 질문도 괜찮고 아무 질문도 다 괜찮아

참석자 2 12:50

저희가 또 2주차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WBX인데 학원 측에서 WBS를 기 프로젝트에 스크린샷으로 대체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기 프로젝트 한

번 써보셨나요?

참석자 1 13:04

옛날에 쓰긴 했었어요. 그거를 최근에는 그걸 안 쓰고 있는데 네 맞아요.
맞아 2 3주 차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 아마 그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을지 그거 찾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참석자 2 13:18

아 네네네네

참석자 1 13:19

그거 해가지고 만드시고 저를 이제 인바이트 해 주세요.

참석자 2 13:22

네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13:24

아마 사실 코드 리뷰 같은 게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툴도 잘 쓰
시고 하니까 이게 제 메일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개발자의 역량이 툴들을 잘 쓰는 사람이 AI 이런
툴들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호 님이 그걸 너무 잘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상용화된 툴을 많이 써보고 잘 써보고 녹여낼 수 있는 거라
는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코드를 만들다 보면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들을 리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코드는 당연히 시가 짜주니까 잘 짤 거니까 아까처럼 인호 님이 이제 보여주시면서 코드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자 1 14:24

이거는 그래서 밑에 거는 다 채워 오세요. 네. 데이터를 다 찾으시고 채워오시고 지금 분기도 너무 예쁘게 많이 따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코드 관리하고 직접 짜보고 하면 좀 골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골 아프냐면 이 그래 사실 회사가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만든다면 이런 에이전트가 몇 개가 될까요?

이 삼성이 될 것 같은데 삼성이 만든다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 1 2 3이 3에서 끝나지 않고 2만 3만 6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죠 그러면 코드로 관리가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이노 임 나중에 이거 이것도 한번 구현해 보세요.

램 플로우라고 있어요. 로 코드로 이제 하는 툴이거든요.

지금 이런 램 그래프로 돼 있는 것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써봤다고 하면 좋거든요.

참석자 1 15:27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업에서는 저 흐름은 별거 없지 않냐 이걸 왜 다 코드로 짜야 되냐 그냥 평범하게 이제 들어간 드라마로 흐름을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질문들도 많으니까 그 두 개 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또 뭐냐면 그래도 이 에이전트가 아무리 만 개 2만 개 돼가지고 이 그래프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 그래프가 조그마하게 보이겠어요 엄청 커

지니까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멀티 에이전트를 또 관리하는 UI 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 동향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2 16:04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16:06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두고 위에 한번 올라가셔서 이제 플로우 아키텍처도 솔루션 아키텍처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참석자 2 16:13

한도는 이거 더 추가할 건 없을까요? 당장은 그러면

참석자 1 16:16

지금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찾아서 다 데이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철학이나 추가하는 걸 넣어야 되고 아마 이거는 시장 조사나 이런 거랑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16:32

이 LLL 모델도 다양하게 쓰세요. 최대한 4.5 4.0 4.1 다 잘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비용 효율적으로 하려고 미니 썼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 인호 님이 아까 하신 것 중에 VLM도 쓰고 계시던데 그런 걸로 작은 모델도 한두 개 넣는 것도 좋고 시간이 없으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런 팟도 지원받고 있어가지고 따로 로컬 LM으로 배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조그마한 모델 진짜 조그마한 모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라우터 같은 거는 조그마한 모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처리가 돼야 될 것들을 좀 조그마한 모델로 해서 이런 거 비용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건 있어야 돼요.

참석자 1 17:21

그 모델을 선택할 때 왜 그 모델을 선택했는지는 예를 들면 1b 모델을 쓴다면 1b 모델 3개 정도 최근에 유행했던 거 3개 정도를 비교하는 장표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s3를 했고 이 UI 애플리케이션을 짱구 백엔드로 하고 에이전트 약간 혼잡한데 좀 더 좀 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아키텍처를 안 그려봐서 그렇거든요.

근데 회사 가면 이 아키텍처를 많이 그려야 돼요. 이걸 왜 많이 그리냐면 처음 보는 사람도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기술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번 발표하고 하는 사람은 고객 고객은 AI를 잘 몰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임원들이에요. 물론 팀 내에서는 팀 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키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크래프톤의 면접을 볼 때 그때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더라고요.

참석자 1 18:32

혹시 이거 임원들한테 발표를 하려면 용어들 안 쓰고 발표하셔야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발표하시겠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발표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 그래프가 처음 봤을 때 이 플로우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게 보여야 돼요.

지금 제가 공유드린 거는 누가 봐도 편하게 보이잖아요.

네 UI 단 딱 정확하게 에이전트 단 정확하게 DB 단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최대한 이렇게 좀 쉽게 볼 수 있게 누구 누가 누가 와도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네 그러면 일단 이번 주는 저희들이 수요일 날에 온라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왜냐하면 이번 주는 제가 다 바쁠 것 같아 가지고 네 네 괜찮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토요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석자 2 19:42

네네네

참석자 1 19:42

잠깐만요. 제가 글을 남겨놓을게요. 네 시간은 똑같이 수요일은 6시 6시 식사를 하시면서 보세요.

참석자 2 19:57

아 네네네

참석자 1 19:58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은 8시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다 온라인이고 네 그러면 팀장님이 이제 이번 주 해야 될 것들 정리한 걸 지금 공유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네

참석자 1 20:29

팀장님이 이제 PM 역할을 하시는 것 중에 있어서 이런 일 분배들을 잘하고 노트 테이킹을 잘해야 돼요.

네네네

참석자 1 21:32

그리고

참석자 1 21:54

다 적으신 건가요? 네 이것을 카테고리 칼로 좀 나눠보면 이제 사람한테 일을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키텍처 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괄호를 치거나 적고요.

거기에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랑 시스템 아키텍처랑 에이전트 플로우라고 적으세요.

밑에 밑에다가 한 한 칸씩 한 칸씩

참석자 1 22:22

그냥 밑에다가 하이폰하고 시스템 아키텍처 하이폰하고 에이전트 플로우라고 적으세요.

아키텍처 하고 엔터 띄우고 네 카테고리컬하게 가려고

참석자 1 22:45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이제 흐름도를 완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아키텍처도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두 개 다 두 개 다 이제 완성을 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아래 데이터를 하나 또 적으세요. 데이터를 지금 시장 데이터를 하고 데이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 지금 저기 해당되는 거에 우리가 못 찾았던 거 6개 6개에 대한 데이터를 찾는다고 적어놓으시고

참석자 1 23:24

그다음에 밑에 또 시장 조사라고 이제 하나 넣으셔서 그거는 이제 또 가로를 하셔서

참석자 2 23:32

시장조사 괄호에 네네네

참석자 1 23:36

따로 카테고리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하라고 했는지 지금 방금 제가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태수 님께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태수 님이 이제 어떤 걸 제가 해라고 했는지를 여기에 적으시면 되거든요.

참석자 1 23:59

제가 했던 거 노트 테이킹 해놓으신 걸 알려주시면 돼요.

참석자 3 24:02

네 지금 채팅에 작성하려고요.

참석자 1 24:0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참석자 1 24:15

그렇게 해서 일단 표면적으로 그 일을 분배를 해 주셔야 돼요.

네네네 지금 이 자리에서 일단 해놓으시고 네 물론 그 뒤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 하면서 이거 좀 도와줘 도와줘 하면 되니까 지금은 그걸 옆에 매핑을 해 두세요. 누가 하는 일인지

참석자 2 24:37

그러면 아키텍처는 인호 님이 일단은 하시고 계시.

참석자 1 24:41

이 세 개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완성이 돼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네 맞죠. 시장 조사가 돼야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 데이터를 찾아야 시장 조사를 할 수 있고 이 두 개가 완료돼야 아키텍처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종속성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석자 1 25:13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저번에 왜 우리가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최근 트렌드 리포터나 금융 리포터 같은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그것도 적어놔야 돼.

참석자 2 25:22

아 네네

참석자 2 25:31

최근 동향이라고 하면 될까요?

참석자 1 25:35

그거는 뭐 편한 용어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 1 25:46

네 그거를 이제 분배를 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참석자 1 25:53

근데 다 같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냥 일단은 그 포커를 가져갈 사람을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참석자 2 26:04

한 부분은 일단은 아키텍처는 인호 님이 그 전 버전을 만들어주셨으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는

참석자 1 26:15

이름을 적어주세요. 거기 옆에

참석자 2 26:17

네네

참석자 1 26:20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분배한다고 기분 나빠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일단 이렇게 해두시고 PM이 이런 역할을 원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시고 나중에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주실 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팀원들 물은

참석자 2 26:35

알겠습니다. 네 식장도사는 저는 박람회 갔다 오기도 했고 시 세수 님도 찾아보셨으니까 시장 조사 부분을 저랑 태숙 님 먼저 한 다음에 데이터는 데이터는 그리고 승훈 님이랑 경규 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그거를 예측기랑 GPD를 돌려보셨으니까 데이터를 나머지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판단했을 때 아까 멘토 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수가 돼야 데이터를 찾고 데이터를 찾아야 흐름도랑 아키텍처 완성이 될 거니까 이건 끝난 다음에 저희 인호 님이랑 저희 나머지 4명이 이것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신가요?

참석자 1 27:19

일단 제가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이게 여기 매핑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키텍처의 메인 포컬은 그냥 이호 님을 적어주시고 네 전체로요.

참석자 2 27:29

네네

참석자 1 27:30

그다음에 데이터의 메인 포컬은 시장 조사는 태수 님이랑 이제

참석자 2 27:35

네

참석자 1 27:36

리더님이 정우 님이 이렇게 적어두시고 데이터를 이제 승원 님이랑 이제 경규

님 경규 님 죄송해요.

경 씨죠. 네 경 씨 맞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많이 불러요?

그냥 경규라고 하니까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경규 님이라고 해서 혹시나 아무
튼 이거 이 시장 조사 분이랑 데이터 분은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인호 님이 이 데이터랑 시장 조사에 그렇다고 빠지지 않고 도와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하면 딱 정확해졌죠.

네 이것까지 해오시고 그다음에 코드나 이런 것들 배포도 해 주시고 기본적인
스트럭처나 이런 것들을 짜주시고 하시면서 페인 포인트나 아니면 질문할 거
다 준비하셔가지고 수요일 날에 미팅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3 28:29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 1 28:33

혹시 뭐 다른 사항은 없으실까요?

참석자 3 28:37

사진 찍으셔야 됩니다.

참석자 1 28:39

다 찍었습니다. 너무 너무 제일 좋은 질문이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그거 해서 수요일 날에 그러면 웹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 하셨습니다. 네.

clovanote.naver.com